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성 명	한 글	강 경 희	일본명	
	한 자	姜 敬 熙	이 명	
출 생 연월일	1858년 8월 15일		사 망 연월일	미 상
본 적	京城府 南部 會賢坊 南松峴(1913년 주소)			
주 요 경 력	1904년 이전			
	1858.8.15	출생 (대한제국관원이력서, 421쪽)		
	1885.9.3	증광문과 회시입격 (같은 자료)		
	1887.7.4~1887.7.19	注書 (같은 자료)		
	1887.8.16	副修撰 (같은 자료)		
	1889.3.26	修撰 (같은 자료)		
	1891.1.16	병조 참의 (같은 자료)		
	1891.5.9	大司諫 (같은 자료)		
	1898.2.10	중추원 의관(주임관4등) (같은 자료)		
	1898.2.27	비서원승(주임관4등) (같은 자료)		
	1898.11.16~1899.1.16	奉常司 副提調(주임관4등) (같은 자료)		
	1903.10.7~1903.10.11	중추원 의관(주임관4등) (같은 자료)		
	1903.10.18~1903.10.31	비서원승(주임관4등) (같은 자료)		
1904년 ~ 1945년				
1907.2.27~1907.3.10	典膳司 掌膳(주임관4등) (대한제국관원이력서, 422쪽)			



1907.9.4	侍講院 副詹事(주임관2등) (같은 자료)
1908.	대동학회 평의원 (대동학회월보 제1호, 1908년 2월 25일)
1908.5.19	경제연구회 회원 (대한민보, 1909년 8월 19일)
1909.10.10	공자교회 상의원 (통감부문서 10, 集報 경비 제3195호)
1909.12.3	국민연설회 발기인 (황성신문, 1909년 12월 5일)
1910.5.27	한국평화협회 자선부장 (황성신문, 1910년 7월 26일)
1911.6.24~1921.4.27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연수당 1,000원) (조선총독부관보, 1911년 7월 11일, 1918년 12월 26일, 1921년 5월 3일)
1915.3.31	공동묘지 용지를 기부하여 목배 1組를 받음 (조선총독부관보, 1915년 7월 10일)

주 사 내 용

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9호(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와 관련하여

1)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 재직

▶ 「男爵朴齊斌外一名朝鮮總督府中樞院贊議被仰付ノ件」, 『任免』 권18, 1911; 『조선총독부관보』, 1911년 7월 11일.

1911년 6월 24일 강경희를 조선총독부 찬의에 임명함.

▶ 『조선총독부관보』, 1918년 12월 26일.

강경희를 從4位에 絛함.

▶ 『조선총독부관보』, 1921년 5월 3일.

1921년 4월 27일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 강경희가 관제개정에 의해 폐직됨.

【참고사항①】 친일적 성향의 사회단체에서 활동함

(1) 대동학회 평의원

- 출전: 『대동학회월보』 제1호, 1908년 2월 25일; 「經濟狀況」, 『孔子敎會之既往及將來』; 『대한매일신보』, 1908년 4월 8일; 유준기, 「1910년대 일제의 유림 친일화 정책」, 『건대사학』8, 1993년, 207~210쪽.

대동학회는 1907년 3월 일제침략기 통감부의 유림 회유정책에 편승하여 신기선 등이 전직 고위관리를 중심으로 조직한 유교단체이다. 그해 12월 1일 개최된 대총회에서는 초대 통감 이토[伊藤博文]를 초빙하여 강연을 듣기도 하였고, 만원의 기부금을 받기도 하였다. 『대한매일신보』는 대한학회에 대하여 ‘保護를 歌舞하고 結日을 力倡’하였다고 지적하고, 회장 申箕善을 당시 3대 매국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2) 경제연구회 회원

- 출전: 『대한민보』, 1909년 8월 19일; 『일제협력단체사전 -국내 중앙편-』, 민족문제연구소, 2004년, 125~126쪽.

경제연구회는 실업연구회의 후신(後身)으로 경제연구와 실업발달을 표방하며 설립된 친일적 성향의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단체이다.

“경제연구회 회원 중 정봉시, 강경희, 윤교영이 회장 김재순과 협의하여 자본금 수만원을 일본은행에서 차관하기로 결정”함.

(3) 공자교회 상의원

- 출전: 「집보 警秘 제3195호」, 『통감부문서』(10); 『황성신문』, 1909년 10월 12일; 유준기, 「1910년대 일제의 유림 친일화 정책」, 『건대사학』8, 1993년, 211~313쪽.

공자교회는 대동학회의 후신으로 대동학회의 친일매국성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어나자 정교분리의 명분을 앞세워 1909년 10월 10일 명칭을 변경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통감부는 대동학회가 민중의 지지기반을 잃고 외면당하자, 大同敎 등 민족보존에 적극적인 유림을 공격하기 위한 방책으로 공자교를 지원하였다.

(4) 국민연설회 발기인

- 출전: 『황성신문』, 1909년 12월 5일; 『신한민보』, 1910년 2월 23일; 『일제협력단체사전 -국내중앙편-』, 민족문제연구소, 2004년, 79~86쪽.

국민연설회는 1909년 이완용이 자신의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시유세단·大韓商務組合本部·神宮奉敬會 등을 중심으로 일진회 주도의 합방을 저지하고 자신들의 명의로 합방을 추진시키기 위해 조직한 단체이다.

(5) 한국평화협회 자선부장

- 출전: 『황성신문』, 1910년 7월 26일; 『일제협력단체사전 -국내중앙편-』, 민족문제연구소, 2004년, 107~110쪽.

한국평화협회는 일진회의 합방성명서를 찬성하고 한일합병을 관철시키기 위해 조직된 국민협성회의 합방실행 추진단체이다.

【참고사항②】 토지를 기부하여 일본정부로부터 목배를 받음

- 출전: 『조선총독부관보』, 1915년 7월 10일.

1915년 3월 31일 경기도 시흥군 동면의 공동묘지 용지를 기부하여 일본정부로부터 목배 1組를 받음.

판 단

강경희는 1885년 9월 3일 증광문과 회시에 합격하여 병조 참의, 중추원 의관 등을 지낸 후, 대한제국 시기에는 주로 궁내부에서 관료생활을 하였다. 1907년 일제의 유림계 회유책에 부응하여 조직된 친일 유림단체인 대동학회 평의원과 대동학회를 개칭한 공자교회 상의원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한일합병을 저지하고 자신들의 명의로 '합방'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된 국민대연설회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한편 일진회의 합방성명서를 찬성하고 한일합병을 관철시키기 위해 조직된 국민협성회의 합방 추진단체였던 한국평화협회의 자선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 강경희가 일진회 계열과는 또 다른 친일적 성격의 각종 사회단체 간부 및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한 사실은 한일합병 직전 그의 정치적 태도와 지향이 어떤 것이었는지 충분히 짐작케 해준다.

강경희는 1911년 6월 24일에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 찬의로 임명되었고, 이후 1921년 4월 27일 관제개정으로 인해 폐직될 때까지 약 10년 가까이 활동하였다. 이는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9호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강경희의 행위를 <특별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

2006년 9월 12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